

쪽방촌 사람들의

# 희망찾기

## “돈 받아봤자 일하는 것만 못해 ...”

### (3)기초수급신청 않은 이유

#55년생 쪽방인 A씨. 주민등록말소자 인 그는 당뇨로 다리가 죽어가고 있다. 그는 희망근로를 하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입에 풀칠을 하며 노숙과 쪽방을 오가고 있다. 최근 그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일을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부양자가 있어도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 대상이 되는 길이 있지만 아비 노릇도 못한 처지에 차마 나 힘들다고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겠다”고 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쪽방인의 과반수 가량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다. 비수급자들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고물·폐품 수거, 거리 행상 일을 한다.

대구쪽방상담소가 밝힌 지역 850명 쪽방인 중 기초수급자(2009년말 기준)는 일반수급자 399명(47%), 조건부수급자 33명(4%)이다. 나머지 341명(40%)은 비수급자이고 77명(9%)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이 수급자 신청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 상담소의 윤승걸 소장은 “수급혜택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스스로 수급권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비수급자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하게나마 인력 시장을 통해 막일을 하거나 식당 등에서 불규칙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매달 수입은 불규칙하다. 비수급자들의 월수입은 20만 70만원 정도다.

B(65)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물·폐품수거, 일용직 등의 일을 한다.

그는 “일반수급자로 신청하면 매월 4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수령받을 수 있지만 이 돈으로는 방값과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생활하기 버겁다”고 말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아 수급자가 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 싶어도 일을 갖지 못한다. 작은 돈이라고 수

입으로 잡히면 그만큼의 수급비용이 차감되거나 잘못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수급자를 등록하게 되면 일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급자로 산다는 것은 이들에게 마지막 보루다.

벽보·환경정리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해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우 올 겨울, 일감이 없어 지자체로부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5만~20만원을 받고 생활하는 이들도 많다. 신용불량, 채무관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수급권자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쪽방인 850명 중 작년말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불분명한 이는 10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주민등록 없이도 불편함 없이 지냈던 상당수 쪽방인들은 작년년부터 희망근로라도 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회복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

올해부터 강화된 수급자 선정방식도 쪽방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기초생활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의사)와 활동능력평가(공무원)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수급대상자는 두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을 수 있다.

허리디스크가 있는 C(58)씨. 그는 외형상으론 별 이상 없어보이지만 현장일 등 무리한 노동은 불가능하다.

얼마전 그는 수급권 신청에 필요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의사는 ‘근로능력 유무를 의사가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느냐’며 ‘힘든일은 삼가하라’는 애매한 조건만 밝혔다 한다. 그는 수급자 대상자가 되지 못할까 전전긍긍이다.

최근 기초수급자 판별을 위한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뜨겁다. 평가항목에는 ‘외모가 혐오감을 주거나 심한 냄새가 난다’, ‘산만하고 자포자기



한다’, ‘공격성을 띤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등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무원은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을 추려, 수급자로 선정한다.

C씨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만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지 않느냐”면서도 “수급 혜택을 받기 위해 허름하게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불만이다.

이처럼 쪽방거주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이유는 각가지다.

현재 상담소에서는 쪽방인들에게 주민등록비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가 채납돼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윤승걸 소장은 “뚜렷한 주거지가 없는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수급혜택을 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노숙-쪽방-쉼터-노숙을 반복, 육체적·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이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일시적인 주거 및 일자리 제공이 아닌 개인특성에 맞는 자립(직업),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문의: 053-356-3494. 계좌번호 007-04-000442-7(대구은행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고정일기자 kji@idaegu.com